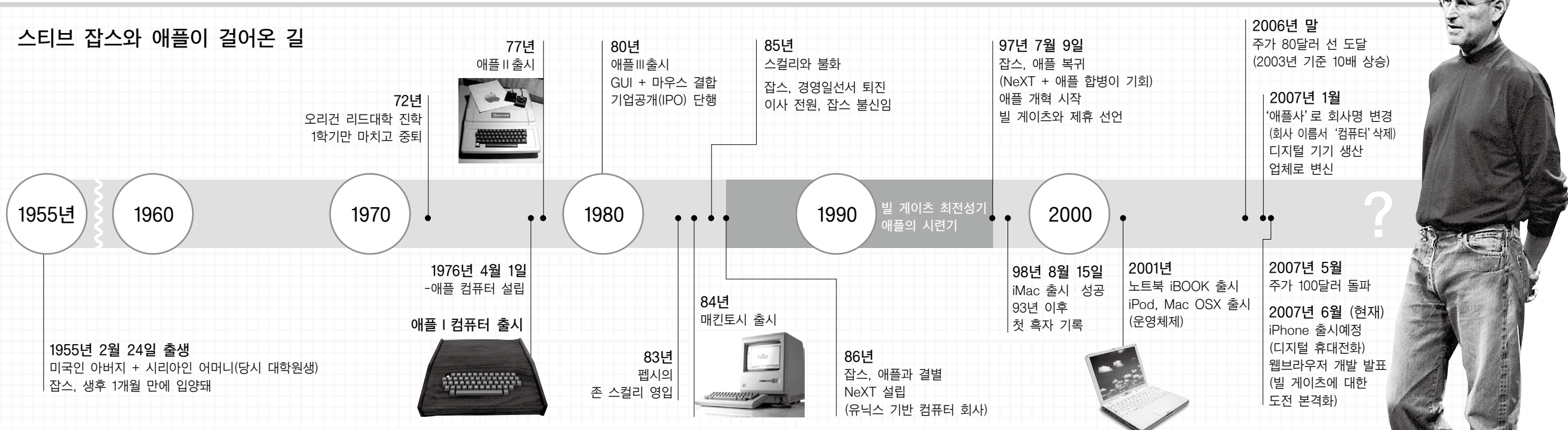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에 10년 만의 설욕전

아이팟 성공에 이어 웹브라우저 등으로 MS 추월 노려

“독선적인 성격으로 조직불화 야기하지 않으면 빌 게이츠 뛰어넘을 수도

강남규 기자 dismal@joongang.co.kr

1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페럴가(街) 하얏트 호텔. 전 세계 애플 마니아(개발자)의 이목이 한 사람에게 쏠렸다. 그는 애플 창업자이며 최고경영자(CEO)인 스티브 잡스(52·사진)였다.

잡스는 애플이 주최하는 2007년 세계개발자회의(WWDC)의 기조연설을 할 참이었다. 그는 늘 기조연설 기회를 활용해 언론과 글로벌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을 놀라게 할 만한 뉴스를 내놓았다. ‘기조연설 경영자’라고 불리는 이유다.

잡스는 그날도 검은색 티셔츠와 청바지, 짧은 머리, 면도를 한 듯 만 듯한 수염을 한 모습이었다. 최근에는 하얀색으로 바꾼 사과 모양의 애플 로고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검은 셔츠를 즐겨 입기도 한다.

잡스는 이날도 중요한 전략을 내놓았다. 올 10월께 새로 선보일 예정인 매킨토시 운영체제(OS)인 ‘레오파드’를 공개했다. 레오파드에는 ‘부트캠프’라는 호환 프로그램이 있다. 이를 이용하면 매킨토시 PC에서도 MS의 OS인 윈도우를 쓸 수 있다. 윈도우와 호환할 수 있는 시험용 브라우저인 ‘사파리’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행사를 ‘잡스의 빌 게이츠에 대한 반격’으로 풀이했다.

잡스는 97년 회사가 어렵자 자존심을 접고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게이츠한테서 투자를 받았다. 그 대가로 잡스는 자사의 매킨토시에 MS 웹브라우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게이츠에게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잡스는 이번 일로 10년 만에 게이츠의 철옹성 같은 영역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이는 잡스가 게이츠의 전략을 살짝 바꿨다. 애플 제도약에 활용하고 있는 셈이기도 하다.

원래 게이츠는 IBM 개인컴퓨터(PC)의 호환성을 바탕으로 성공했다. 어떤 IBM PC라도 MS의 윈도우 XP 등 운영체제를 설치해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잡스는 애플이 고수해 온 운영체제와 컴퓨터의 일체 전략을 바꿨다. 애플이 자사 컴퓨터에 MS 윈도우XP나 비스타를 설치해 쓸 수 있도록 할 예정

이다. 얼핏 보면 잡스가 MS에 안방마저 내주는 듯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사용할 만한 응용 프로그램(문서작성기 등) 종류가 적어 매킨토시 컴퓨터 판매가 부진한 약점을 이번 호환 허용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내 앞마당을 내주면서 게이츠(MS)를 끌어들이 공격하는 전략이다.”(월스트리트저널 6월 12일자)

또 잡스가 발표한 웹브라우저 사파리도 게이츠의 야성을 흔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파리에 구글의 검색 단추를 기본으로 달아주고 돈도 벌고 MS의 경쟁자인 구글의 입지를 강화하는 일거양득 효과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후의 승자가 누구일지는 시간만이 대답해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지는 “잡스와 애플 쪽의 승리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잡스가 복귀한 뒤 애플은 컴퓨터 회사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소비자 친화적인 디지털 기기 생산업체’로 변신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애플 변신의 계기는 97년 7월 잡스의 복귀였다. 퇴출과 마찬가지로 그의 복귀도 전격적이었다.

당시 최고경영자인 길 아멜리오는 회사로부터 이사회 소집을 알리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게이츠의 MS 위세에 눌려 지지부진한 실적과 주가 때문에 이사회 출석이 그에게는 고역이었다. 하지만 화려한 그래픽을 바탕으로 한 e-메일 시스템을 개발한 NeXT와 합병이 성사된 직후였기에 그런대로 이사들을 볼 낯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아멜리오는 “당신 해고야!”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이사 전원 불신임이었다. 대신 축출된 ‘애플의 전제군주’인 잡스가 그의 후임으로 선임됐다.

스티브 잡스 어록

“사람은 조직 내에서 튀기를 원치 않으면 1000가지 변명을 낸다.”
(비즈니스위크, 2004년 10월 12일자)

“혁신은 연구개발(R&D)비용 규모와는 상관없다. 애플이 매킨토시를 선보인 순간 IBM은 R&D에 최소 100배 이상의 비용을 쏟고 있었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어떤 인력이 있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결과가 얼마나 나오느냐가 문제다.” (포춘, 98년 11월 9일자)

잡스가 쫓겨난 지 11년 만이었다. 그는 게이츠와 함께 세계 PC 업계를 주름잡던 83년 펍스에서 일하던 존 스컬리를 경영자로 영입했다. “여생을 설탕물(콜라)이나 팔면서 지낼 것인가?”라고 그를 설득했다.

그러나 스컬리는 녹록한 인물이 아니었다. 새끼 사자였다. 스컬리는 85년 말 이사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잡스를 경영 일선에서 쫓아냈다. 명분은 경영전략 차이에 비롯된 불화였지만 잡스의 제왕적인 언행 때문에 빚어진 조직 내 갈등이었다. 좌절감에 시달린 잡스는 이듬해인 86년 단 한 주만을 남기고 애플 주식을 처분하고 떠났다. NeXT라는 회사를 설립·운영했지만 야인으로 생활했다.

“누가 내 배를 후려쳐 기절한 기분이다. 내 나이가 겨우 서른 살이다.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플레이보이, 87년 9월호)

잡스는 절치부심했다. 그 시절 그의 어록에는 애플 복귀의 각오가 짙게 배어 있다.

“내가 애플을 운영한다면 매킨토시를 최대한 이용하겠다. 뛰어난 제품 개발에 주력하겠다. PC 전쟁은 끝났다. MS가 이긴 지 오래다.”(포춘, 96년 2월 19일자)

잡스는 애플의 경영권을 다시 쥐자마자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아이디어를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래픽 디자이너나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기존 고객을 초월해 일반 소비자에게 호소한다는 게 그 전략의 기본이다. 화려한 그래픽과 디자인을 첨가했다.

잡스는 98년 노트북 아이맥(iMac)을 내놓아 히트했다. 93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했다. 2001년에는 새 노트북 아이북(iBook)과 휴대용 디지털 음악재생기인 아이팟(iPod), 매킨토시용 새 운영체제 OS X을 선보였다. 분기마다 신제품을 줄줄이 선보일 정도였다. 덕분에 애플의 주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80달러 선에 이르렀다. 2003년 말보다 10배 이상 올랐다.

잡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올 1월에는 회사 이름을 ‘애플컴퓨터’에서 ‘애플’로 바꿨다. 더 이상 컴퓨터와 운영체제에 집중하는 기업이 아님을 전 세계에 천명한 셈이다. 투자자들이 환호했다. 지난달 주가가 대망의 100달러를 돌파했다. 현재는 120달러 선이다. 10월께는 감성적인 디자인으로 장식된 음악재생 가능 휴대전화 아이폰(iPhone)을 선보이며 여세를 이어갈 태세다.

지금은 잡스에게 제2의 전성기다. PC혁명의 주역으로 각광받던 80년대 초반이 첫 번째 전성기였다. 달리 말해 ‘미혼모의 아들로 출생→생후 1개월 만에 입양→대학 1학기 중퇴, 애플 창업→PC신화 창조→이사회 반발, 퇴출→극적 반격, 화려한 재기’(그래픽 참조)로 이어진 극적인 삶의 제4막인 셈이다.

잡스는 이제 PC시대 동반자이면서 경쟁자인 게이츠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인생 제5막을 시작하려고 한다. 승리를 위해 경쟁의 마당까지 바꿨다. 게이츠의 승리가 확인된 컴퓨터·운영체제 시장이 아니라 소비자 친화적 디지털 기기 시장으로 변경한 것이다. 장외 선전전에서 게이츠 인기를 견제하기 위해 잡스는 화려하게 재기한 자신의 인생 스토리까지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잡스의 소비자 친화적인 전략은 구글과의 경쟁에 정신 팔려 있는 게이츠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측면을 공격하는 것이기에 승산이 좀 더 높다는 평이다. 그가 독선적인 성격으로 조직 내 불화를 다시 일으켜 쫓겨나지만 않는다면.